

# 시정주요뉴스(2021. 4. 2.)

광주타임즈

2021년 04월 02일 (금)

## 목포시, 청년창업자 자금난 해소 앞장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종잣돈 지원사업' 추진  
1인당 연간 금융비용 46만9000원 절감 가능

목포시가 창업 초기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한 청년창업자를 위한 금융(종잣돈)지원 사업을 올해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4월부터 추진한다.

종잣돈 지원사업은 목포시가 2억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을 보증해 청년들이 지역신보에 일정수준의 보증료(1% 이하)를 내고 보증(최대

3000만원)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청년창업자 종잣돈 지원 사업을 위해 총 4억원을 출연하고 188명의 청년창업자에게 41억 5000만원을 보증했다. 이를 통해 대출받은 청년 창업자들은 1인당 연간 금융비용을 46만9000원(이자 38만원, 보증료 8만9000원)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보증을 이용할 경우 평

균금리 2.71%, 보증요율 1.2%를 적용받지만 종잣돈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평균 0.99%금리에 0.8%의 보증요율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목포시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사업 참여자(188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여파 등 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해 종잣돈 지원사업은 청년창업자들의 생존과 일자리 유지에 순기능 작용을 하고 있다.

2019년 6월 개업해 수제 도라지청·금귤정과, 목포주전부리 3종 등을 판매하는 달달청나라 장승혁 대표는 "자금난을 겪는 창업초기에 종잣돈 지원사업을 통해 재료와 고가

의 장비를 구입했고, 금융비용도 절감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청춘빌리지 오소잉에서 예약제 키즈베이킹 교실을 운영하는 요니요니 배나영 대표는 "창업초기 자금 안정에 도움이 됐다. 대출이 어려운 초기 청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지역 청년들의 꿈과 열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금지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285-870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효원 기자

## □ 동일기사 게재 언론사

- 프레스뉴스 - 강래성
- 아시아뉴스통신 - 고정언
- 천지일보 - 김미정
- GBS - 김상복
- 시대일보 - 김상태
- 국제뉴스 - 김성산
- 내외일보 - 김성환
- 아시아일보 - 김재오
- 호남타임즈 - 김재형
- The 대한일보 - 김정현
- 경인투데이 - 김철훈
- 뉴스깜 - 김필수
- 무안신안뉴스 - 나준엽
- 위키트리 - 노해섭
- 헤럴드신문 - 문상준
- 중부뉴스통신 - 문음미
- 광주일등뉴스 - 박부길
- 국제언론인클럽 - 박성
- 호남뉴스24 - 박용하
- 전남제일신문 - 박정민
- DBS광주동아방송 - 서은철
- 남도일보 - 심진석
- 통합뉴스 - 안광성

- 더코리아 - 양민철
- 메트로신문 - 양수녕
- 뉴스웨이 - 오영주
- 매일일보 - 윤성수
- 일등방송 - 윤지성
- 여성종합뉴스 - 이경문
- 서울일보 - 이원용
- 세계타임즈 - 이혜원
- 뉴스인전남 - 정거배
- 목포타임즈 - 정소희
- 아시아경제 - 정승현
- 에너지경제 - 조민일
- 내외뉴스통신 - 조완동
- 뉴스워커 - 조준성
- 전남목포신문 - 최영천
- 데일리스포츠한국 - 최지우
- 전국타임즈 - 최효성
- 충청탐뉴스 - 하성매
- 웨이코노미 - 함현선
- CNN21 - 허병남
- 시사매거진 - 황보배
- 시민일보 - 황승순